

다들 알지만 잘은 모르는 이야기

결정판 「이솝전집」 펴낸 柳宗鎬교수



유년시절 책읽기의 첫경험에 맞닿아 있어 늘 동화의 테두리에만 머물던 이솝우화를 어른이 되어 다시 읽는 맛은 각별하다. 최근 유종호교수가 펴낸 「이솝전집」은 그 각별한 맛을 한결 세련되게 재현해 독자들에게 어린시절의 추억과 교훈을 새롭게 올려준다.

유종호교수.

아마도 많은 이들의 유년시절 책읽기 첫 경험은 이솝우화와 맞닿아 있을듯싶다. 사자의 은혜를 갚는 새앙쥐, 나그네를 두고 벌이는 태양과 삭풍의 힘겨루기, 낮잠을 자다가 경주에 진 토끼와 거북이 등등 너무나도 친숙한 이솝이야기들이 어린시절 추억속 한자리에 깔려 있다. 동화의 테두리에만 머물던 이솝우화를 성인이 되어 다시 읽는 맛은 각별하다. 최근 유종호교수(이화여대 영문과)가 번역한 「이솝전집」(민음사)은 그 각별한 맛을 한결 세련되게 재현해 독자들에게 어린시절 추억과 함께 이솝우화의 교훈을 새롭게 올려주고 있다.

“이솝우화는 너무나도 친숙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수백편 이솝우화 가운데 우리가 접해본 것은 고작 3, 40편에 불과해요. 게다가 어린이용으로 개작, 윤색한 것뿐이라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도 많습시다. 원전에 가깝게 번역해서 일반인이 지닌 이솝우화에 대한 편견을 바로잡아주고 싶었어요.” 성인이 읽어 그 깊이를 느끼면 이솝우화가 다루고 있는 맥락과 교훈이 엄청나게 다양하고 풍부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리라는 설명이다. 이솝우화는 지금까지 수많은 판본으로 남는데 그 가운데 프랑스의 에밀 샹브리가 이솝의

것으로 추정되는 358편을 엮은 「이솝우화집」(1929)을 가장 신뢰할 만한 연구본으로 꼽는다. 이번에 유종호교수가 번역한 「이솝전집」은 샹브리의 판본을 비롯한 몇몇 연구본을 기초로 영국의 험포드가 집대성한 펙킨판(1954)을 텍스트로 삼았다. 확실한 이솝의 우화만을 모두 207편으로 간추린 펙킨판 이솝우화는 고도로 압축된 함축미와 본래의 상징성을 보존한 권위를 자랑한다. 이야기마다 후세사람들이 붙인 해석 혹은 교훈도 이 판본의 특징.

“원래 이솝우화는 일반서민들의 문학장르로 어린이를 위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인간이 처한 상황이나 거동이 동물이나 신, 무생물에 투사돼 그려지죠. 같은 동물이 등장하더라도 아이들은 개구리가 왕자로 변하는 따위의 내용을 더 좋아합니다. 반면에 우화는 짝막한 산문과 운문의 형식으로 교훈을 얘기하죠. 그런 점에서 어른세계의 속담과 상통한 점이 있어요.”

예컨대 외투 하나밖에 없는 젊은이가 제철도 아닌 때 날아든 제비를 보고 여름이 왔다고 생각하여, 외투를 팔아버린 후 계속되는 추운 날씨에 얼어죽은 제비를 발견하는 이솝우화는 ‘제비 한마리가 여름을 만들지 않는다’는 영어속담으로 압축 표현돼 있다. 한가지 사례를 일반화하지 말라는 권고다.

냉혹한 현실세계에 대한 이해

여기서 “우화가 극도로 축약되면 속담이 이뤄짐”을 알 수 있다. 유교수는 속담과 우화가 보통사람들의 경험에 근거하여 세속의 지혜를 말한다는 점에서 옛 철학자가 설파한 윤리나 이상적인 덕목의 추구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한

다. 오히려 어떻게 이 세상을 별탈없이 보낼 수 있는가를, 피로서 상대방을 누르거나 때로는 강자에게 맞서기보다 실속을 차릴 것을 권유하는 등의 현실주의적 사고를 부각시키는 경우가 많다.

“세상을 살아가는 요령을 제시한 일종의 병법이라고나 할까요. 은혜를 갚는 새앙쥐도 있지만 얼어죽을 뻔한 뱀을 품속에 넣어 살려준 농사꾼이 뱀에게 물려죽는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여름에 노래로 세월을 보내며 먹을 것을 구걸하는 매미에게 개미는 동정은커녕 문을 닫고 외면해버립니다. 여기서 개미의 부지런함을 배우기보다는 제각기 살길을 마련해야만 하는 냉혹한 현실세계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솝우화는 민중의 생존원리를 말하는 서민문학, 민중문학으로 일컬어지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민중적 시각은 우화 전편에 깔려 있는데, 큰키를 자랑하는 감람나무는 폭풍에 쓰러졌지만 키작은 갈대는 쓰러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와, 개구리떼가 이상적인 지도자를 다른 곳에서 찾다가 썩은 나무토막을 삼겨 물뱀의 먹이가 되고 만다는 이야기는 각각 민중의 생명력과 어리석음의 속성을 풍자한 셈이다.

이솝우화의 풍자적 기능은 정치적 알레고리에 의한 때 더욱 날카롭게 표현된다. 유교수는 17세기 프랑스문학과 철학을 분석한 튀시앙 골드만이 “라퐁텐의 우화는 ‘제5계급’인 농민과 장인들의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다”고 한 말을 들어 풍자적 우화의 민중적 시각을 설명했다.

뱀과 족제비가 앙숙되어 싸우다가 새앙쥐를

“아이에게 자연을 선물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모험도감’은 자연의 길잡이입니다.

자연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어찌다 야외에 나가면 어떻게 해야 할 지 당황만 할 뿐. 자연의 벗 ‘모험도감’이 이 두려움을 해결해 드립니다. 배낭 꾸리는 법, 텐트 치는 법, 지도 읽는 법, 요리법, 응급 치료법, 야생 동·식물의 세계... 참교육의 한마당인 자연, 이곳에서 우리 아이들의 꿈을 펼쳐보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진선출판사 2도 인쇄 / 340쪽 / 값 4,800원
전화 720-5990 · 1



· 사토우치 아이 글
· 마쓰오카 다스히데 그림
· 김창원 옮김

◆ 자연에서 놀며 배우는 아이들.....

「모험도감」, 「놀이도감」이 있어 더욱 즐겁다



「놀이도감」본문 중에서 ‘제기차기’



· 오쿠나리 다쓰 글
· 나가타 하루미 그림
· 김창원 옮김

개구쟁이들의 친구 「놀이도감」

언제, 어디서, 누구나 ‘놀이도감’과 뛰노는 즐거운 하루. 화초놀이, 야외놀이, 자연에서 논다. 전승놀이, 만들며 논다 등으로 구성되어 창의력, 순발력, 응용력을 길러 주는 재미있는 ‘놀이책’입니다. 아이들의 생명력은 무한히 뻗어나는 자유로운 힘 — 마음껏 달리고, 던지고, 구르고 미래의 꿈이 점점 커갑니다.

• 2도 인쇄 / 340쪽 / 값 4,800원

지금 서점에 있습니다.

보면 서로의 다툼을 그치고 새양귀를 잡으려 한다는 얘기에서 적대관계에 있는 정치가들의 싸움에 민중이 휘말리면 정치가들은 오히려 단합하여 민중을 파멸시키리라는 교훈을 암시 받는다. 또 부의 상징인 플루투스를 헤라클레스가 외면하는 것도 민중의 편에 서서 강자를 꺾고 있는 셈이다.

“서민문학인 만큼 이솝우화에 문학적 수사나 기교가 적습니다. 이야기의 70%는 동물이 주인공으로 등장하죠. 인간의 품성과 행동을 동물에게 투사해서 가령 사자는 용맹스럽고 여우는 교활한 짐승의 표본으로 나타납니다. 다분히 현실적이고 풍자적인 어조로 인간행동을 그려나가죠. 다루는 주제도 대체로 일상의 상식윤리를 반영합니다. 이점은 바로 이솝우화와 현대우화의 차이점이기도 해요.”

이솝우화가 보통사람들의 삶의 지혜를 모은 민중문학이라면 현대우화는 글을 많이 써본 사람이 자신의 특수경험을 일반화시켜 교훈을 전달하는 지식인 교양인의 관점이 두드러진다는 설명이다. 한편으로 이솝우화엔 동양고전에 담긴 내용과 흡사한 이야기가 흔하다. 백조처럼 맑은 목소리를 지녔던 솔개가 말 우는 흉내를 내려다 원래 목소리까지 잃게 된 이야기는 「장자」에 나오는 「邯鄲之步」와 같은 교훈을 남기며, 양치기소년 이야기는 「列國志」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담겨 있다.

간결, 산뜻한 문장으로 풍자묘미 살려

보통사람들의 보편적인 경험에 기초했기 때문에 비슷한 소재가 선택되고 동서양 인간행의 심리적 해석도 유사하게 나타난다는 유

교수의 풀이다. 인간행동의 본질은 이미 수십 세기 이전부터 존재해온 공통의 것이기에 오늘날에도 우화는 여전히 살아있는 현실의 체현으로 다가온다. 이때문에 이솝우화 원전번역은 유종호교수 평소생각인 “고전번역의 중요성” 과의 연장선에서 더욱 비중 있는 의미를 부여받고 있다.

성인용 우화이니만큼 “단어선택에도 세심한 배려를 했다”는 이 「이솝전집」은 우화의 성격상 경어체를 사용한 점도 특징. 거기에 유교수 특유의 간결, 산뜻한 문장이 행간에 스민 우화의 묘미를 은은히 살려 새로운 책읽기의 체험을 마련해 놓았다.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완곡하게 다뤄진 현실세계에 대한 풍자는 보편성 속에 내재하는 인간개성을 대담하게 비취보임으로써 현대인에겐 신선한 자극으로 읽혀진다.

“책을 좀더 많이 읽고 싶은 욕심에서 출발”한 유종호교수의 영문학으로의 길에는 평론집 「비순수의 선언」을 비롯해 「同時代의 시와 진실」 「사회역사적 상상력」 「문학이란 무엇인가」 등 굵직한 걸작들이 차례로 도열돼 있다. ‘왜 외국문학을 하는가’에 대한 끊임없는 자기확인을 거듭하며 우리문학에의 애정을 키워온 유교수는 방학이라 책읽는 시간이 비교적 많은 요즈음엔 3, 4종의 책을 한꺼번에 읽어가는 부지런한 학자다. 대학교 3학년인 막내딸을 둔 나이에도 소년 같은 깨끗한 웃음이 그대로인 유교수의 제일 큰 소망은 “정관사가 붙을 단 한편의 오롯한 책을 쓰는” 일이다.

—김지원 기자

소식

음악으로 민족정신 대변한 安益泰

문화부 8월의 문화인물로 선정, 각종 행사마련

한국인 재발견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부의 ‘이달의 인물’에 음악가 安益泰가 선정됐다. 문화부에서는 8·15광복절을 계기로 음악을 통해 나라의 광복에 기여한 안익태선생의 업적을 재조명하는 한편 그의 음악적 생애와 애국심을 기리는 각종 기념행사를 마련했다.

음악의 선구자로서 세계각국에 극동의 불행한 나라 코리아를 알려온 안익태선생의 뜻을 ‘애국가 탐’으로 건립하는 계획과 함께, 10월 안익태추모음악제를 계기로 스페인 마요르카 섬을 돌아보는 안익태 기념관 순례단을 모집중이다.

또한 ‘안익태의 달 기념연주회’ (8.22 국립중앙극장소극장)를 열어 안익태 작곡 가곡인 ‘흰 백합화’ 등을 연주하고, 기념사진전시회 (8.15~8.31 덕수궁전시관)를 마련하여 안익태의 생애를 돌아보게 할 계획이다.

한편 ‘음악을 통한 애국정신의 재조명’ 등 주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강연도 마련했으며 국립중앙도서관과 시내 6개 대형서점에서는 안익태 관련도서 특별코너를 마련, 8월부터 전시중에 있다.

애국가와 우리민족의 영광과 수난을 그린 환상교향곡 「코리아」의 작곡가로서 국제적으로도 유명한 안익태는 구한말의 암울한 시기인 1906년 12월5일 평양 상수리 여관집 셋째아들로 태어났다. 선교사가 세운 평양숭실중학교에서 음악에 대한 꿈을 키운 후 그는 일본의 ‘도쿄음악원’ 미국 신시내티음악학교 등에 유학하면서 신시내티시립심포니오



케스트라의 제1첼로주자로 입단, 동양인 최초의 연주자가 된다. 독주회로 명성을 날리며 유럽에 건너간 안익태는 바르토크, 코다이의 문하생으로 본격 작곡공부를 시작, 나치에 동조한 리히르트 슈트라우스의 보조지휘자로서 기반을 닦기도 했다.

일제하에 신음하던 민족의 독립정신을 음악으로 대변한 「애국가」는 1932년 미국 체류중 착상, 4년만에 완성해 해외에서 먼저 불려졌는데 안익태는 연주 때마다 「코리아환상곡」을 프로그램에 넣어 마지막 합창부분을 우리말로 부르게 하는 등 조국에 대한 열정을 음악을 통해 표출해보였다. 1965년 스페인 바르셀로나병원에서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안익태를 기리기 위해 마요르카섬에는 ‘안익태의 거리’로 명명된 곳이 있으며 해마다 10월에 안익태추모음악회를 열고 있다.

시간과 인력을 제작하는 사람들

우리가 만난 사람은 모두가 성공자였다

성공자는 스피드를 절약합니다

기획
편집인을
찾습니다



기획 및 제작 대행

광고제작의 모든 것 / 복디자인 / 회고록 / 단행본 / 기업 홍보물 / 팜플렛 / 카달로그
상품패키지 디자인 / 기타 인쇄관련 모든 것

전자조판 시스템

어떠한 PC데이터도 99%이상 호환 성공 / 아무리 많은 양의 원고도 일시에 처리

아이디어뱅크

출판 원고은행 운영 / 광고 및 출판 COPY 제작 / 기타 출판에 관한 아이디어 제공

만나보고 싶다
인간적이기를 고집하는 당신을
만나보고 싶다
시대를 앞서가는 당신을
만나보고 싶다
풍부한 감각을 지닌 당신을



한솔기획

전화 722-3866 / 735-4997 팩스 739-8791
대한민국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4번지 옥빌딩 706호